

# 미래사회의 변화물결 감지한 예측서들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④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자본주의의 미래》까지

해의 석학들에 의해 씌어진 사회변동이론을 다룬 책들은 국내에 소개되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사회변동이론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 격변기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미래예측서'라는 별칭으로 더 잘 통하는 사회변동이론서의 계보에서 맨앞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종언》(삼성문화재단, 1972)이다.

## 유토피아의 종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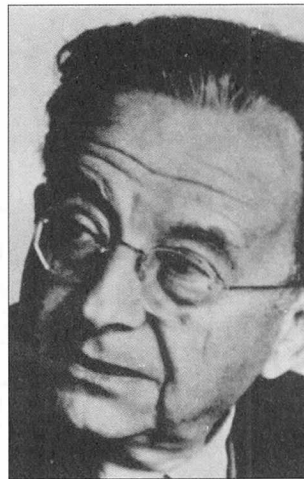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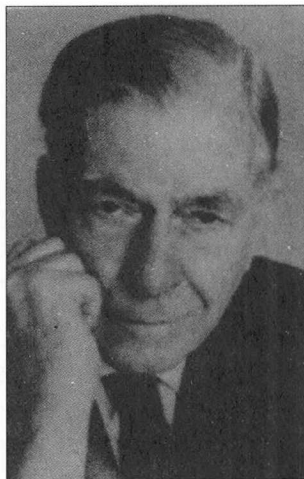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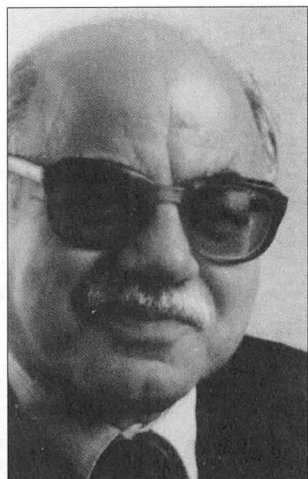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 이 책은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언했다 해서 화제가 됐지만,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자멸을 미리 감지한 것이지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길을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칼 만하임을 인용해 이데올로기는 현존 질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 유토피아는 사회질서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상으로 구분짓는다.

1960년에 나온 원서에서 논문 8편을 뽑고, 저자의 최근 논문을 더해 번역서가 나온 때가 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된 해다. 소문만 믿고 이 책의 주제를 '반공'으로 지레짐작한 검열 담당자가 책을 읽지는 아니한 모양이다. 사회주의 모델을 예로 들면서 경제성장이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관찰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유신체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사상이 민중에 대한 전면적 강제와 민중을 몰아세우는 새로운 '엘리트'의 대두를 대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강제가 없으면 경제의 진전이 그렇게 급속히는 추진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역할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 책은 삼성문화재단의 다섯째 권이다. 삼성그룹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문고의 초창기 목록에 들어 있다. 문고본 간행 취지에 걸맞게 책값이 70원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소년잡지의 가격이 200원대인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파격적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우주선에서 이쑤시개까지 재벌이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지만, 출판은 재벌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다. 재벌 그룹은 기업 이미지를 선양하는 수단으로 출판계와 제휴해왔다. 삼성의 뒤를 이은 대우그룹이 그렇



왼쪽부터 다니엘 벨 · 갈브레이드 · 에리히 프롬 · 앨빈 토플러.

고(대우학술총서), 최근에는 동양그룹이 출판의 패턴이 되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이르는 격동기, '홍성신서'(홍성사)는 첨단 사회이론을 공급한 것들이었다. 78년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나》를 시작으로 80년대 중반까지 1백여권을 펴내며 사회과학의 바람몰이에 성공했다. 이 책은 현대인의 삶의 양상을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으로 대비한다. 새로운 사회를 일구는 새로운 인간은 존재양식에 의거하며, 독특한 성격구조를 지닌다. ▲완전한 존재를 위해 모든 소유를 포기한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에 완전히 존재한다 ▲주는 것과 공유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 ▲자신과 동료의 성장을 지고의 목표로 한다 ▲자기 자신을 안다 등.

## '홍성신서'와 80년대 사회과학 출판

'홍성신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이 책은 하루 주문량이 1만부인 적도 있었다고 홍승용 상무는 회고한다.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 제작과정에서 실수도 있었다. 활판인쇄를 하던 시절이라 잘 나가는 책은 지형을 여러 벌 만들었는데, 같은 면이 두번 들어간 것도 모르고 완성된 책을 배포하기도 했다. 수천부가 파본이었음에도 반쯤으로 되돌아온 책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홍상무는 전한다.

판매량에서는 조금 뒤지지만, '홍성신서'의 간판스타는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이다. 81년 한해에 《불확실성의 시대》《대중은 왜 빈곤한가》《새로운 산업국가》같은 그의 주

저들을 선보였다. 《새로운 산업국가》에서 갈브레이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이 더 이상 개별 자본가 수중에 있지 않고, 기술직원 등 전문화된 직원에게 있다고 간파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집단을 '기술관료조직'이라 일컬으며, 이들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라 아니라고 말한다.

기술관료조직은 여러가지 이익을 전체적으로 복합시켜 이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외부투자자의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면서도 성장을 극대화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관료조직을 추동하는 힘은 '공감'과 '적응'이다.

80년대초 신군부에 의한 대대적인 출판판압의 와중에서 홍성사는 굴지의 출판사로 발돋움한다. 첫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이고, 펴내는 책마다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창립 1년만에 출판계의 정상에 올랐다. 단행본 출판사로는 처음으로 자체 인쇄시설을 갖췄을 정도였다. 이런 안팎의 역량을 간파했음인지, 81년 신군부는 홍성사 이재철 사장에게 모종의 제의를 한다. 《뿌리 깊은 나무》《창작과비평》《문화과지성》등을 강제 폐간시킨 신군부 세력은 잡지문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어용잡지'의 창간을 권유했던 것.

필요한 자금을 넉넉히 제공한다는 제의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사장은 나름의 출간계획서를 만들어 협상하는 기지를 발휘해 잡지 창간을 없었던 일로 한다. '당근'에 마음이 끌려 '체쩍'을 감수했다라면, 오늘 홍성

사회주의 몰락을 감지한 다니엘 벨의 저작에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파악한 앨빈 토플러의 접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예측한 미래서들이 사회격변과 맞물려 국내 독자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사장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80년대 초반 지성의 암흑기에 '한길사상신서'(한길사)와 함께 사회과학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홍성신서'는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해소'된다. '한길사상신서'가 80년대 내내 활력을 보여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그 원인은 두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총서목록을 다변화하지 못한 것. 80년대 중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붐물 같은 수요가 있었지만, '홍성신서'는 주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책들로 목록을 채워나갔다. '좌파 상업주의'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은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고려해야 했다.

두번째는 이재철 사장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홍성신서'의 출간을 아예 중단했던 것. 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글들'을

#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려구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 사업내용

집필 :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및 문학 · 위인전 등  
운문 :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등

## 기계설비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었던 합니다. 근무 시간은 9~6시이며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이다. 1970년부터 10년 단위로 《미래쇼크》《제3물결》《권력이동》이 출간돼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3부작은 1950년대 중반에서 2025년에 이르는 기간을 새로운 문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보면서 각기 다른 분석틀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는 변화의 과정에 주목해 변화가 인간과 조직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고, '물결'은 변화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에 관심을 보였다.

《권력이동》은 누가 어떻게 변화를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력은 청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직 유효하고, 경제력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의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고 권력의 원천이 옮겨지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제 권력은 '머리'에서 나온다. 최고 권력의 창출자는 지식(인)이다.

한국경제신문사 출판부는 저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권력이동》을 펴내 30만부가 훨씬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제3의 파도'(또는 '제3의 물결')나 '미래의 충격'이란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토폴러의 저서는 《제3물결》(1989)과 《미래쇼크》(1989)로 정착돼 신세대 독자와 만나고 있다. 토폴러 선집은 이 신문사 출판부를 미래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강대국의 흥망》(폴 케네디, 1989),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피터 드러커, 1993), 《메가트렌드 아시아》(존 나이스비트, 1996) 등은 토폴러 붐에 힘입은 미래예측서들이다.

90년대 미래예측서 출판은 저자와의 독점계약과, 이에 따른 거의 동시적인 출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저자들은 한국어판 서문을 첨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디자인하우스는 다니엘 벨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근작들을 독점출판한다. 미래예측서는 신선도가 생명인 책이로되 예전에는 10여년전이나 20년전에 나온 것도 감지되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호랑이 담배 필 적 이야기가 되었다.

레스터 C. 써로우의 《자본주의의 미래》(고려원, 1997)는 가장 최신의 미래예측서다. 갓 구운 빵 같은 이 책은 아직 원서의 온기도 식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 때 미국에서 출간돼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몰고온 이 책의 번역서가 '오늘'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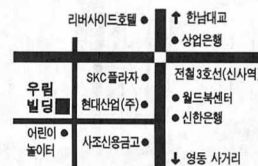
— 최성일 기자

제외한 다른 총서들은 파내지 않게 된다. 홍성사는 종교서적 전문출판사로 변신하고, '홍성신서'의 일부 목록이 도서출판 기린원으로 옮겨 나오게 된다. 86년에서 8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 앨빈 토폴러의 미래 예측서 3부작

동구권의 몰락은 출판계에 대해 페러다임론 또는 미래예측서의 활황을 몰고왔던 바, 앨빈 토폴러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토폴러는 '홍성신서'의 목록에도 들어 있는 낯익은 미래학자란만, 새로 빛은 '술'을 새 '부대'에 담으면서 주가가 치솟았다. 새 부대는 한국경제신문사 출판부이고, 새 술은 《권력이동》(1990)이었다.

이 책은 변화를 주제로한 3부작의 완결편



## 三現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 549-6883~5 팩스 : 549-6877  
천리안 ID : SAMYEUN